

‘고무줄 양형’ 손 본다

대법 양형委 출범…2009년까지 기준 마련

법원·판사마다 들죽날쭉해 ‘온정주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재판 형량의 기준이 마련된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최경 등에 따라 ‘징역 1년~16개월’식으로 양형의 범위가 정해지면 지역이나 재판부별로 각양각색인 선고형량의 차이가 거의 사라지고 1·2심의 형량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관을 역임한 김석수(75·고시 10회)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출범식을 연 뒤 1차 회의를 열고 양형기준 논의에 착수했다.

양형위원회는 오는 2009년 4월 말까지 2년간 유사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법원·판사별 불합리한 양형 평균을 해소해 범죄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양형위원회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부파·성폭력·소년·환경·선거 범죄와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한 살인·사기 및 교통사고 범죄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양형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양형위원회는 박종하 서울고법원장, 유원규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13

인으로 구성된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성폭력·성매매 ▲수표부도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총 16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광주지법 최인규 판사는 “법원 내부에 따라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든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대대적으로 양형기준을 만든 적은 없었다”면서 “대법원의 양형위원회도 각 법원별로 만들어진 양형기준을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고생 병영체험 ‘각개 앞으로’
2일 육군 제31사단 신병교육대 훈련장에서 병영체험에 나선 광주 대광여고 2학년 한 여학생이 M16 소총을 들고 각개전투 훈련을 받고 있다. 대광여고는 학생들에게 불굴의 도전정신과 인내심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31사단과 자매결연해 올해로 7년째 학생 병영체험 행사를 하고 있다.

을 확보하지 못했다.

신병 미확보 상태에서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하고 형이 확정될 경우 당사자는 형 미집행자로 분류돼 지명수배를 받게 된다. 이씨의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되는 만큼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현행법(형법 제78조)상 ‘시효 5년’이 적용돼 앞으로 5년 안에 검거될 경우 8개월간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이씨는 지난 2005년 사기죄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잠적해 집행유예 만료일을 20여 일 앞둔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 보호관찰소 측은 지난해 9월 이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아직까지 신병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보호관찰중 잠적 집유 취소 ‘철퇴’

광주보호관찰소, 신병 미확보 상태 첫 청구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받고도 보호관찰에 등하지 않거나 잠적한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이같은 조치는 보호관찰소가 거주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통상 구인장만을 발부해왔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구인장이 반려되며 일쑤고, 같은 맹점을 악용하는 범법자들이 느슨히 따른 것이다.

광주보호관찰소는 최근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허위 신고하고 잠적한 이모(41)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광주지법에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사기죄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잠적해 집행유예 만료일을 20여 일 앞둔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 보호관찰소 측은 지난해 9월 이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아직까지 신병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초등생 여드름 10년새 3배 급증

초경 연령 낮아지고 서구식 식생활 영향

‘사춘기의 꽃’ 여드름이 일찍 피고 있다. 12세 이하 초등학생 여드름 환자가 10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대한피부과학회(이사장 김광증)는 전남대·원광대 병원을 비롯한 전국 43개 종합병원 피부과 내원환자 13만4천77명을 분석한 결과, 지난 1996년 2.4%였던 초등학생 여드름 환자 비율이 지난해에는 7.5%로 늘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체 여드름 환자 중 4.9%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연령 층에서는 19~24세(31.7%)의 여드름 환자가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25~29세(19.5%) ▲13~18세(14.8%) 순이었다. 30세~39세 여성의 경우 67.9%로, 같은 연령의 남성 32.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피부과학회는 노영석 홍보이사는 “초등학생의 여드름이 늘고 있는 것은 초경 연령이 낮아지는 등 어린이의 성장이 점차 빨라지고 있고, 기름기가 많은 서구식 식생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여드름 예방을 위해서는 ▲과도한 햇빛 노출을 피하고 ▲심하게 때를 믿지 않으며 ▲고른 영양을 섭취한다는 등 ‘피부건강 10계명’도 함께 발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특목고·명문대 합격자 실적 부풀리기

입시·보습학원 등록 말소키로

앞으로 입시기관들이 특목고나 명문대에 입학한 자기 학원 출신자 수를 부풀려 발표할 경우 학원등록 말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집형을 선고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자립형 사업과 외국어고, 과학교, 명문대 등에 들어간 수강생들의 수사를 과장 광고해 사교육 과열 현상을 부추기는 입시·보습 학원들을 침자지 단속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대해 2

/연합뉴스

광주교대 교수 2명

논문 표절 확인

광주교육대학교는 “사회교육과 교수 2명이 연구논문 중 일부 내용을 표절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앞서 관련

제보를 받고 지난 2월 실사에 나서 두 교수의 표절 사실을 확인해 최근 대학에 결과를 통보했다.

대학 관계자는 “징계 여부는 한 달 간 해당 교수들의 이의신청 기간 뒤에 결정될 것”이라며 “교수들의 이의신청을 교육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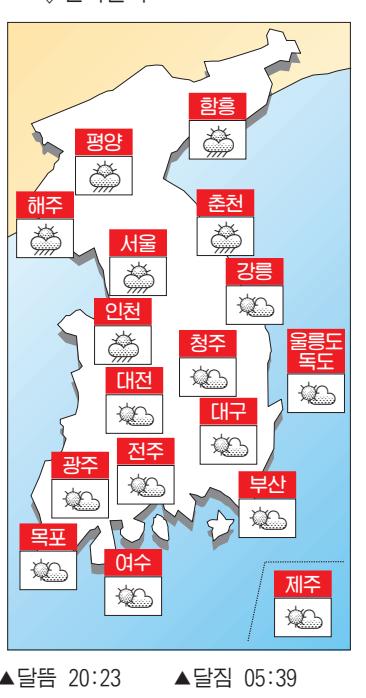
출근길 안개 ‘조심’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후 기압골의 영향으로 맑은 후 점차 흐려지겠다.

광주	맑은후 흐림	10~24°C
포항	맑은후 흐림	11~21°C
여수	맑은후 흐림	13~22°C
원도	맑은후 흐림	10~22°C
구례	맑은후 흐림	9~24°C
해남	맑은후 흐림	8~23°C
장성	맑은후 흐림	9~24°C
고성	맑은후 흐림	12~25°C
순천	맑은후 흐림	8~23°C
광주	맑은후 흐림	6~23°C
전주	맑은후 흐림	10~24°C
남원	맑은후 흐림	7~25°C
정읍	맑은후 흐림	9~24°C

5월 3일

(음 3월 17일)
◇전국날씨



지난해 2만2천여명 적발

KTX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그리고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우다 적발되는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철도범죄 발생 및 겨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철도범죄 관련 행정사법은 총 5만1천449명으로 2005년의 5만1천859명보다 줄었지만 열차 내 소란 행위로 단속된 사람은 지난해 2만2천818명으로 전년도 2만328명보다 12.2%나 증가했다.

열차 무단입장도 지난해 2천82명으로 2005년 1천702명보다 늘었다. 선로보행과 구걸행위는 지난해 3천 413명과 2천157명으로 전년도 4천 470명과 3천793명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다.

검교부는 행정사법의 경우 최근 주요 역의 노숙인이 늘어나면서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기초질서를 저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철도범죄 형사범의 경우 강·절도는 줄었지만 성폭력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겨자된 열차 내 형사 사건은 총 394건으로 2005년 504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는 강·절도가 2005년 188건에서 지난해 82건으로 급감한데 따른 것이다. 반면 성폭력은 2005년 31건에서 지난해 40건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병역특례 압수수색 대상

연예인 근무업체도 포함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부는 2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61개 업체 중 일부가 채용을 미끼로 납품 가격을 낮추는 등 의 대가를 쟁기 단서를 잡고 관련 회계 장부를 분석 중이다.

한편 압수수색 대상인 61곳에는 이미 소환조사를 받은 남성그룹 출신 가수 K씨, L씨가 근무했던 M사 외에도 댄스그룹 멤버 I씨가 근무하는 Y업체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제보를 받고 지난 2월 실사에 나서 두 교수의 표절 사실을 확인해 최근 대학에 결과를 통보했다.

대학 관계자는 “징계 여부는 한 달 간 해당 교수들의 이의신청 기간 뒤에 결정될 것”이라며 “교수들의 이의신청을 교육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제보를 받고 지난 2월 실사에 나서 두 교수의 표절 사실을 확인해 최근 대학에 결과를 통보했다.

대학 관계자는 “징계 여부는 한 달 간 해당 교수들의 이의신청 기간 뒤에 결정될 것”이라며 “교수들의 이의신청을 교육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제보를 받고 지난 2월 실사에 나서 두 교수의 표절 사실을 확인해 최근 대학에 결과를 통보했다.

대학 관계자는 “징계 여부는 한 달 간 해당 교수들의 이의신청 기간 뒤에 결정될 것”이라며 “교수들의 이의신청을 교육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제보를 받고 지난 2월 실사에 나서 두 교수의 표절 사실을 확인해 최근 대학에 결과를 통보했다.

대학 관계자는 “징계 여부는 한 달 간 해당 교수들의 이의신청 기간 뒤에 결정될 것”이라며 “교수들의 이의신청을 교육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제보를 받고 지난 2월 실사에 나서 두 교수의 표절 사실을 확인해 최근 대학에 결과를 통보했다.

대학 관계자는 “징계 여부는 한 달 간 해당 교수들의 이의신청 기간 뒤에 결정될 것”이라며 “교수들의 이의신청을 교육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제보를 받고 지난 2월 실사에 나서 두 교수의 표절 사실을 확인해 최근 대학에 결과를 통보했다.

대학 관계자는 “징계 여부는 한 달 간 해당 교수들의 이의신청 기간 뒤에 결정될 것”이라며 “교수들의 이의신청을 교육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제보를 받고 지난 2월 실사에 나서 두 교수의 표절 사실을 확인해 최근 대학에 결과를 통보했다.

대학 관계자는 “징계 여부는 한 달 간 해당 교수들의 이의신청 기간 뒤에 결정될 것”이라며